

우리자산운용 연금WM:2500-0150

2024. 08. 26

수 신 수신처 참조

제 목 집합투자증권 투자설명서 및 규약 변경의 건

1. 귀사(행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, 규약을 변경하오니 수익자 통보 등 해당 업무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▪ 대상펀드 및 변경내용

펀드명	변경내용	규약 변경 여부
우리퇴직연금글로벌이머징40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	- 소규모 모펀드 해지에 따른 삭제	○
우리글로벌이머징증권자투자신탁 [주식]	- 소규모 모펀드 해지에 따른 삭제 -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-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	○
우리글로벌이머징증권자투자신탁2호 [주식]	- 소규모 모펀드 해지에 따른 삭제 -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-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○
우리다같이TDF2025증권투자신탁 (혼합-재간접형)	- 자문계약 종료 후 직접 운용 전환에 따른 전략 등 변경 - 환매지급 주기 단축 -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-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○
우리다같이TDF2030증권투자신탁 (혼합-재간접형)	- 자문계약 종료 후 직접 운용 전환에 따른 전략 등 변경 - 환매지급 주기 단축 -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-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○
우리다같이TDF2035증권투자신탁 (혼합-재간접형)	- 자문계약 종료 후 직접 운용 전환에 따른 전략 등 변경 - 환매지급 주기 단축 -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-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○



우리자산운용 연금WM:2500-0150

2024. 08. 26

수 신 수신처 참조


제 목 집합투자증권 투자설명서 및 규약 변경의 건

펀드명	변경내용	규약 변경 여부
우리다같이TDF2040증권투자신탁 (혼합-재간접형)	- 자문계약 종료 후 직접 운용 전환에 따른 전략 등 변경 - 환매지급 주기 단축 -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-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	○
우리다같이TDF2045증권투자신탁 (혼합-재간접형)	- 자문계약 종료 후 직접 운용 전환에 따른 전략 등 변경 - 환매지급 주기 단축 -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-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	○
우리다같이TDF2050증권투자신탁 (혼합-재간접형)	- 자문계약 종료 후 직접 운용 전환에 따른 전략 등 변경 - 환매지급 주기 단축 -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-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	○
우리에이스공모주알파증권투자신탁 (채권혼합)	- 결산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(4등급→5등급) - 수익률변동성 기준 변경(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→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) - 정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 -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X

▪ 효력발생일 : 2024.08.30

※ 첨부서류 (감독원의 지도하에 첨부 서류의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: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, 규약, 변경대비표 각 1부.

우리 자산 운용 (주)
대표이사 **최 승 재**



* 수신처 : DB금융투자, IM뱅크, KB증권, LS증권, NH투자증권, SC은행, 경남은행, 교보생명, 교보증권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대신증권, 미래에셋증권, 부산은행, 삼성증권, 신한은행, 신한투자증권, 아이비케이투자증권, 우리은행, 우리투자증권, 유안타증권, 유진투자증권, 키움증권, 하나은행, 하나증권, 한국씨티은행, 한국투자증권, 한화생명, 한화투자증권, 현대차증권, 홍콩상하이은행

